

사도행전 27장. 선지자의 경고를 명심함으로써 우리는 보호받고 안전하게 될 것이다. (20~25분)

수업을 시작하면서 다음 이야기를 읽어준다. (다리 이야기)

반원들에게 바울은 그 다리 위에 있었던 사람과 비슷한 처지에 있었다고 말해 준다. 그들에게 사도행전 27장 9~26절을 읽게 하고,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백부장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때 그 배의 승객들은 어떠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는가? (난파 ...)
- 이러한 경험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임 ...)

반원들에게 27~44절을 읽음으로써 이야기를 끝내게 한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바울은 선지자로서의 정당성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었는가?
 - 이것은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자신감에 관하여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 “무너진 다리”에 대해서나, 또는 우리의 삶에서 직면하는 위험에 대해서 반원들과 함께 토론한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최근에 선지자가 우리에게 경고한 것은 무엇인가? (비축 ...)
 - 우리가 선지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거나 하지 않는 경우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고난, 고통 ...)
 -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명심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화평 ...)

칠십인 정원회의 일원인 스펜서 제이 콘디 장로의 다음 말씀을 읽는다.

“저는 우리가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하는 이 형제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그분들은 끊어진 다리 앞에 서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십니다.” (Conference Report, 1993년 10월, 21쪽; 또는 성도의 빛, 1994년 1월호, 17쪽)

반원들에게 살아 있는 선지자에 대해 이와 똑같은 감사의 마음을 갖도록 격려하고, 그들의 권고를 주의 깊게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도록 격려한다.

사도행전 27:13~28:10. 용기를 가지고 시련을 견디어 뱀으로써 우리의 성품을 강화시킬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는 것은 우리에게 용기를 준다. (25~30분)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직면하는 어려움들은 어떠한 것들인가? (대답에는 질병, 사랑하는 사람을 잃음, 일과 관련된 스트레스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반원들과 함께 사도행전 27장 13~15절을 읽은 다음,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 알아본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어떻게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의 어려움 또는 “풍파”에 비유될 수 있는가? (순풍, 광풍, 밀림, 가는 대로 감)

반원들과 함께 사도행전 27장 16~44절을 읽은 다음, 이러한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한 바울의 성품들에 대해 알아본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는 용기(21~24절), 희망(22, 25절), 하나님에 대한 신앙(30~31절),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평온하게 할 수 있는 능력과 양식(33~36절)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성품들은 우리가 스스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토론한다.

공과반에 아령을 하나 가져온 다음, 한 반원에게 그것을 들어 올리게 하거나 (그것을 허리에서 어깨까지 들어올린다.) 또는 한

반원에게 팔 굽혀 펴기를 하게 한다. 근육은 저항을 이겨낼 때 강해지고 가꾸어진다는 것을 설명한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성품과 영적인 성장은 근육의 성장과 어떻게 비교될 수 있는가? (자랄 수 있음, 강해짐, 연습, 훈련 ...)
-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어려움을 극복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영적인 근육이 단단해 짐, 담대해 짐 ...)

칠판에 고린도후서 1장 3~4절, 4장 8~9, 17절, 빌립보서 4장 13절이라고 적는다. 반원들에게 성구를 읽어보게 하고, 다음 질문들에 답해보게 한다.

(고후1:3-4)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고후4:8-9, 17)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빌4: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 자신의 인생의 시련에 대한 바울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신앙 ...)
-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시련에 직면했을 때, 바울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인내, 긍정적 태도 ...)
- 인생의 시련에 대한 그릇된 태도를 갖는 것은 우리의 성품을 강화시키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낙담, 좌절 ...)
- 인생의 시련과 관련하여 우리는 어떻게 적절한 태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가? (주님께 의지함 ...)

한 반원에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인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의 다음 말씀을 읽게 한다.

“주님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성장과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한 발전은 여러분이 처음에는 좋아하던 좋아하지 않던 간에 여러분이 접하는 모든 성장 경험을 통해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시도록 기꺼이 허용할 때 가속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신뢰하고,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을 기꺼이 주님의 뜻에 중심을 두도록 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영의 인도를 간구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에서 가장 큰 행복과 이 지상 생활의 경험을 통해 가장 만족할 만한 성취를 보장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행하도록 요구되는 모든 것에 의문을 품거나, 즐겁지 않은 모든 시련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 때,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려 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리차드 지 스코트, Conference Report, 1996년 4월, 33쪽; 성도의 빛, 1996년 7월호, 25쪽)

반원들에게 사도행전 28장 1~10절을 읽게 하고,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이 구절에서 바울이 보여 주었던 영적인 힘과 성품들은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축복을 주게 하였는가? (안도감, 과격판단 자제, 병고침, 후한 대접, 식량 조달)
-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데 주님이 도와주시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무엇인가? (신앙 ...)

2009년 9월 11일, 수원ST 신갈W 세미나리 교사, 구승훈 형제

“1975년 1월의 어느 날, 비가 내리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 태즈 메이니아에서 7,000톤급 바지선이 동쪽 만을 가로 질러 호바트와 태즈메이니아를 연결하는 타스만 다리 교각 돌을 들이받아 다리 세 칸이 부서졌습니다. 그 때 링이라는 성을 가진 한 오스트레일리아인 가족이 차를 몰고 다리를 건너고 있는데 갑자기 다리 가로등 불이 꺼져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차 옆을 빠른 속도로 지나쳐 가던 차가 그들 바로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머레이 링이 급히 브레이크를 밟자, 차가 앞으로 미끄러지면서 다리가 끊어진 곳에서부터 1미터도 채 못되는 곳에서 가까스로 멈추어 섰습니다.’(스티브 존슨, “끊어진 다리 위에서”, 영문 리더스 다이제스트, 1977년 11월호, 128쪽)”

“머레이는 가족들을 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사고 현장을 향해 달려오고 있는 차들을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두려움 속에서 마치 미친 듯이 두 팔을 휘둘러대는 데도 차 한 대가 그를 피해 지나가서는 물 속으로 빠져 버렸습니다.’(128쪽) 두 번째 차는 가까스로 멈추어 섰지만, 세 번째 차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오더니 다리 가장 자리에 있던 링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갑자기 사람을 가득 실은 버스가 경고를 무시한 채로 머레이씨 쪽으로 달려 왔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운전사가 있는 창문 쪽을 따라 뛰어가면서, “다리가 끊어졌소!”라고 힘껏 외쳤습니다.’(129쪽) 버스가 방향을 틀며 다리 난간을 들이받은 채로 가까스로 멈추어 섰습니다. 수십 명이 목숨을 구했습니다.”(스펜서 제이 콘디, Conference Report, 1993년 10월, 21쪽; 또는 성도의 벗, 1994년 1월호, 17쪽)

(사도행전 28장 1~10)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차매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붓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